



# 영·농이네기 인사각들

“행복한사람들이 모여서 눈빛이 아름다운 이야기”



# Contents



## 03 원장님 인사말

## 04 신규 직원 인사말

## 06 함께여서 더 즐거운 시간(웃놀이)

## 07 설 명절 따뜻한 한 상, 함께 만들어 더욱 행복한 시간(전부치기)

## 08 문화시니어클럽 장애인 돌봄 서포터즈

## 10 생일파티

## 11 신나는 운동시간

## 12 음악재활치료

## 13 나눔의집 이런일저런일

## 15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19 후원안내 및 세입·세출

## 20 나눔의집 안내도 및 장애인생산물 소개

## 알림마당

최근 충주 시내에서 나눔의집을 사칭하며 물품(반찬, 김, 떡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지역 업체(식당, 슈퍼 등)에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며, 위 사진의 나눔의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눔의집으로 연락주세요~

나눔의집 홈페이지

<http://www.cjnanum.or.kr>

발행인 : 나눔이네 사람들  
편집인 : 김용철, 이정화, 유혜인

인쇄처: 디자인잠수함 TEL : 043) 855-2231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844-8150  
FAX : 843-9911

#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봄길

## 봄길

원장 문 미 향

정 호 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꽁꽁 얼고 겨우 내 내린 눈에 덮혔던 땅도, 겨우 내 앙상히 남아 있던 나뭇가지도 봄 기운을 만나면 여지 없습니다. 어디든 봄의 입김이 닿으면 얼었던 땅은 이름 모를 들풀과 꽃을 피우고, 겨우 내 앙상했던 마른 가지는 물기를 머금고 푸른 잎을 냅니다. 한 계절이 끝나면 놀랍게도 또 다른 계절이 살며시 소리도 없이 우리 곁에 오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이로움 없이 당연한 듯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다보면 그 살아낸 하루로 한 주가, 한 달이 그리고 일 년이 금세 가버리기에 모든 이들은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매일 묻어나는 나눔의집에서 이용인 한 분 한분에게 의미있는 하루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께 이번 봄, 유난히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사랑으로 남아 있는 이용인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 길을 걸어가는 나눔의집 직원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나눔의집 이용인 곁에 계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봄날 되시길 기원하며 이용인분들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아름다운 봄 보내세요~

## 따뜻한 만남, 소중한 인연의 시작




간호조무사 황혜정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면접을 보게 된 곳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나눔의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출근 전날까지 마음이 쉽사리 놓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길이 세계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과 이용인들의 환한 미소는 그 모든 걱정을 단번에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낯설고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매우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시며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용인분들 또한 밝은 표정과 반응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곳은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용인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제게 새로운 배움의 연속입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한 분 한 분의 삶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화진 시간에 상처가 있는 분들의 소독을 돕고, 식사와 위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일상적인 케어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손길 하나, 짧은 말 한마디, 눈을 맞추는 순간조차 이용인분들께는 큰 안정감과 신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이 일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러 긴장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인분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이 전달되는 순간들 속에서 신뢰가 쌓여가고, 그 관계 속에서 저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책이나 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고, 책임감의 무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병원 동행을 통해 진료를 보고, 검사와 약 처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인분들의 환한 웃음과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에너지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돌봄’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따뜻한 관계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함께”여서 더 즐거운 시간

선임생활재활교사 **박 명 순**

윷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담호실과 산다라호실의 따뜻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전통놀이에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은은히 번졌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운섭씨와 경탁씨가 윷과 모를 연달아 던지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해현씨의 “이겨래!”라는 힘찬 응원 은 현장의 열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응원과 웃음 속에서 승부는 점점 더 흥미롭게 이어졌습니다. 운섭씨는 선물꾸러미를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다 과자 한 봉지를 건네받자 환한 미소로 화답했고, 작은 간식 하나에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경기가 이어질수록 기쁨과 아쉬움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내담호실이 윷이나 모로 상대 말을 잡을 때면 경희씨의 아쉬움이 살짝 스쳤고, 뒤처지던 내담호실이 다시 따라잡는 순간에는 오국씨의 호탕한 웃음이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응원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름씨와 미정씨는 정성껏 윷을 던지고 받은 인형을 꼭 안은 채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 그 순수한 기쁨이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두식씨와 함께하는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웃음도 피어났습니다. 윷을 던지던 중 다리를 짝 뺀 모습에 “발등에 올리면 발로 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서로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말판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고, 결국 내담호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정한 의미는 승패가 아닌, 함께 웃고 응원하며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윷놀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쌓아간 이 따뜻한 기억들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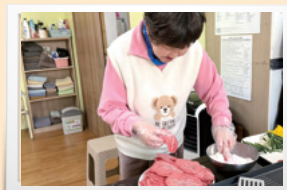




# “설 명절 따뜻한 한 상” 함께 만들어 더욱 행복한 시간

영양지원팀장 이 종 임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기관에서는 이용인분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집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며 명절의 정취를 느끼고, 함께 협력하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인분들과 직원들은 만두 만들기를 비롯하여 육전, 동태전, 꼬치전, 동그랑땡전 등 다양한 전통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부터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를 빚는 과정까지 이용인분들이 직접 참여하며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손길이었지만 서로 도와가며 만두를 빚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는 시간에는 고소한 향기가 공간 가득 퍼지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꼬치전을 만들며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꽂는 이용인분들의 집중한 모습과,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밝은 표정에서는 명절의 설렘과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완성된 후에는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만든 음식 속에는 정성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번 집밥 프로그램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넘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용인분들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며 따뜻한 명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이용인분들이 일상 속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작은 만남이 준 큰 깨달음



장애인 돌봄 서포터즈 **박 광 석**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고, 차가웠던 겨울이 물러가며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매서웠던 계절은 지나가고, 새싹이 하나둘 돌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듯 우리의 일상에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바쁜 손길로 논과 밭을 일구는 농부님들의 모습처럼, 저 역시 새로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2월부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나눔의집'에서 장애인 돌봄 서포터즈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명의 서포터즈가 함께하며, 이용인들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용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긴장했던 마음은 이용인들의 밝은 표정과 먼저 건네주시는 손길 덕분에 금세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각과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부딪히고, 때로는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순간들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이용인분들은 먼저 다가와 웃어주시고, 표현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며, 잠시 기다려주는 여유를 보여주십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시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이용인분들을 이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자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용인분들께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진심을 담아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도움은 물론, 말 한마디로 마음을 나누고, 잠시라도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 드리는 따뜻한 말동무가 되고자 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이용인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의집은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느껴집니다. 이 따뜻한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더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용인분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계신 원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이곳이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눔의집에서의 하루하루는 저에게도 큰 의미와 배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오늘 하루는 내 세상!

선임생활재활교사 송 은 희

매달 첫째 주, 따뜻한 오후 햇살이 은은히 스며드는 시간. 2층 중앙복도에는 정성껏 차린 생일상과 알록달록한 풍선이 어우러지며, 한 달에 한 번뿐인 작은 축제가 시작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공간을 채우고, 이용인과 직원 모두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집니다. 그달의 생일을 맞이한 이용인들을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고, 고깔모자를 쓴 주인공들을 향해 생일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함께 박수를 치고 눈을 마주치며 축하를 전하는 그 순간, 공간은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케이크 위 촛불을 끄는 짧은 순간에도 웃음과 설렘이 어우러지며, 소중한 기억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노래에 맞춰 앞으로 나와 춤을 추는 이용인, 상 위의 간식을 반기운 마음에 먼저 손에 쥐는 이용인, 주변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는 이용인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참 따뜻한 풍경입니다. 때로는 시골벽적이고 정신없는 순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보다 진솔하고 순수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이용인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이 소중한 순간들은 사진으로 남겨져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이 되고, 생일상에 올려진 케이크와 간식, 음료는 각 호실로 나누어져 또 한 번의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호실에서는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웃음꽃이 피어나고, 생일의 기쁨은 하루를 넘어 일상 속 따뜻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또한 나눔의집에서는 이용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이용인이 원하는 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정이 있는 이용인은 가족과 함께 외식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그 자체로 큰 기쁨이자,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원가정이 없거나 외식이 어려운 이용인에게는 담당 선생님이 함께 지역사회 식당을 방문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외부 식사가 불편한 경우에는 원내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보다 다른 기쁨을 원하는 이용인에게는 생일선물로 마음을 전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생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 하나까지 존중받는 경험은 이용인들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일 외식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이용인과 가족, 그리고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관계의 결과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의집은 이용인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빛날 수 있도록 정성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생일이라는 하루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따뜻한 순간들이 모여 일상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시간”

물리치료사 이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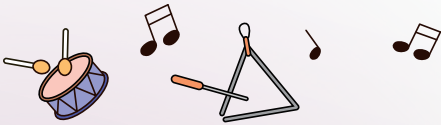
공공 열어 있던 땅이 녹고, 나무와 꽃들의 새싹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따뜻한 3월이 찾아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이 계절과 함께 나눔의집에서는 다시 활기찬 '신나는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나는 운동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원내 모든 이용인과 직원이 함께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용인분들은 걷기, 네발기, 구르기, 배밀이 등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하루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옆에서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며 안전하게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진행했지만, 봄이 시작되면서 외부 활동이 가능한 이용인분들은 가까운 운동장으로 나가 트랙을 걸으며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은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이용인분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밝은 웃음이 피어납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용인분들도 원내에서 네발기기와 구르기 운동을 하거나 휠체어 산책을 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웃는 따뜻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용인 곁에서 늘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는 복지사 선생님들과 시니어 선생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기에 신나는 운동시간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이용인분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나는 운동시간' 속에서 이용인분들의 웃음과 건강이 함께 자라나기를 바라며, 모두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음악으로 여는 변화의 시작



상담평가요원 **강 미 정**

우리 나눔의집에서는 2026년,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재활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기존의 활동 중심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음악 기반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비교적 움직임이 양호한 이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외상 이용인 및 휠체어 이용인을 중심으로 7명이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이용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중심의 재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음악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익숙한 리듬과 다양한 악기 소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며,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밝은 표정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정서안정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소리를 높이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인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란도란 꿈드래 프로그램은 총 13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듬 활동, 타악기 탐색, 호흡 및 발성 훈련, 즉흥 연주, 신체 움직임 유도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리듬과 소리를 활용한 활동은 인지 자극을 유도하고,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표현력 향상과 자기 표현 능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인 중에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음악을 듣고 반응하며, 손과 발을 이용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음악활동을 넘어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지며, 재활의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이용인의 사례는 이 프로그램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음악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며 싫다고 표현하였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좋았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꿈드래는 이용인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몰입하며, 웃음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꿈드래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재활, 정서안정, 긍정적 변화, 표현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눔의집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이용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런일 저런일



- 일시 : 2026년 01월 02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시무식



- 일시 : 2026년 01월 05일
- 장소 : 호암예술관
- 내용 : 법인시무식 나눔의집 슬로건 선정



- 일시 : 2026년 01월 09일
- 장소 : 성모학교 강당
- 내용 : 졸업식



- 일시 : 2026년 02월 04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이용인 대상 흉부 x-ray 촬영

## 이런일 저런일



- 일시 : 2026년 02월 06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이용인 대상 사업설명회

- 2026년 02월 10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충주의료원 무료 건강검진(이용인 대상)



- 일시 : 2026년 02월 12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송덕원 산하시설 이용인 금전관리 교차점검  
(나눔의집, 송덕재활원, 운위마을, 햇빛촌, 다사랑센터)

- 일시 : 2026년 03월 12일, 16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직원 인권교육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26.1.1~  
26.3.31

매월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나눔의집 입주민과 시설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문오석	박O경	백O진	신O곤	오O중	이O훈	이O현	이O상	임O호	정O근	차O유	최O현	홍O기
문O원	박O철	백O옥	신O기	우O현	이O하	이O빈	이O일	임O주	정O기	채O선	최O우	황O석
민O숙	박O구	백O록	신O산	원O희	이O규	이O진	이O희	임O웅	정O용	채O석	최O애	황O민
민O식	박O숙	서O구	심O현	원O식	이O익	이O한	이O화	임O성	정O원	최O수	최O숙	황O남
민O기	박O완	서O희	심O보	유O철	이O열	이O예	이O혜	장O태	정O일	최O택	최O열	황O범
박O순	박O현	서O호	심O섭	유O경	이O정	이O호	이O세	장O	정O	최O주	허O길	황O오
박O원	박O석	손O숙	안O기	유O정	이O호	이O수	이O순	장O자	조O란	최O옥	한O식	황O영
박O경	박O수	송O근	안O준	유O진	이O용	이O영	이O연	장O경	조O희	최O옥	한O미	황O현
박O양	박O숙	송O성	양O국	유O순	이O미	이O옥	이O나	장O미	조O희	최O기	한O주	
박O영	박O정	송O호	어O림	유O현	이O득	이O민	이O영	장O완	조O재	최O철	한O성	
박O우	박O옥	송O석	엄O철	유O중	이O범	이O환	이O선	장O원	조O영	최O범	허O영	
박O희	반O남	신O순	연O선	윤O한	이O화	이O숙	이O진	장O주	조O순	최O수	허O연	
박O근	배O선	신O수	염O선	윤O영	이O경	이O원	임O산	전O수	조O연	최O례	허O수	
박O순	배O순	신O호	오O숙	윤O원	이O훈	이O진	임O희	전O정	지O만	최O란	허O우	
박O미	백O문	신O순	오O민	윤O준	이O준	이O형	임O균	정O진	지O순	최O주	현O호	

## 2026년 1월 ~2026년 3월 신규후원자님



신 규 단 체 명 : 국가공무원인O개발원, 굿O이버스

신규 개인후원자 : 권O우, 김O기, 김O순, 김O배, 김O수, 김O원, 박O구, 박O석, 심O섭, 이O열, 이O범, 이O호, 정O기, 조O영, 최O택, 최O란, 홍O석

## 단체 및 특별후원



(주)농업회사법인 자연알로	충북음성지사	큰가말영농조합법인	푸드뱅크	제자들교회
(주)슈룸(아이더)	호성종합설비	박통상회	스타상사	주백성교회
(주)신한은행	흥진환경	방주자원	아이기에브리싱	중앙치과
(주)충주사과한과	남문상회	샘물중앙교회	양문건설	한국메디칼푸드
(주)케이피에프	삼보빙크	서충주로타리클럽	양의문교회	충북도청
충주타이어미트	남양유업충주담가정대리점	한마을약국	에스파넌씨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MG새마을금고(남충주점)	카카오 같이가치	호암알미늄	엘리영농조합법인	충주건국대학교병원
WELCO	네이버 해피빈	SK텔레콤(정O준)	연일복지재단	충주남부소방서119
ZAN	노무법인 화원	대한적십자기 충북지사	오미해나과	안전센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대경리데일	은위마을	오성가메트	충주문화시니어클럽
경신상회	대광상당	성모요양병원	햇살적십자 봉사회	충주시새마을회
고향떡집	대본통상	성심맹아원	홍이스아과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교현중앙약국	대원고등학교	성중문구도매	굿네이버스	충주시청
국원전기	대한산업안전협회	성호종합주방	미르한의원	충주지역자활센터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케이메디칼	세명대한방병원	정관정(황O숙)	현대사무용기구
김재권내과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세운의료기	우림산업	현대의료기
나눔사랑회	디케이타일	송덕교회	은성미가(정미희사과계장)	화림플라워(화림화원)
나눔의집 경영전문위원회	롯데칠성음료충주대리점	송덕골터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눔의집 부모회	모꼬지 용봉사팀	송덕원	이치과	서울모타
나눔의집 전직원	모닝마트	송덕재활원	이형섭복지재단	
남범우평안정신건강의학과의원	무희시장상인회	송덕학교	잠수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민들레약국	태성수산	제이앤씨산업	



## 방/문/후/원



(주)자연알로	유정종란 120판
(주)신한은행	굴 5kg 1박스, 사인머스켓 2kg 1박스
MG새마을금고(남충주점)	쌀 20kg, 10포
강신원(한국메디칼푸드)	스타벅스 프리미엄 선물세트(40개입) 1박스, 케어밀 스틱셀 선물세트(25g, 45포) 2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라면(너구리 5개입), 46봉지
권옥연(미정보라)	고구마피자L 1판, 불고기피자L 1판
김경희울케	백설기 12kg
김영도(김미경)	검은참깨 두유(190ml, 24개입), 1박스
김은주(교현총일약국)	대일밴드 3곽, 알비50곽 100정
김현지어머니친구	굴 5kg, 2박스
나눔사랑회	떡국떡 10kg, 화장지(크리넥스) 30롤
나눔의집부모회	바나나 13kg 2박스, 사과 1박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단팥빵 90개, 카스테라 90개, 깨끗한나라 슬림 언더웨어 대형(8개입*4팩) 7
충주문화봉사회	박스, 깨끗한나라 슬림 언더웨어 중형(9개입*4팩) 5박스
서동석(롯데칠성음료충주대리점)	생수 1류음 20개, 바람떡 12kg, 밀키스1.5L(12개입) 1박스, 사이다제로
두리유통)	500ml(20개) 6류음, 생수 500ml(20개입) 22류음, 오렌지쥬스 1.5L 2박스
성심맹아원	아몬드 후레이크 500g 12봉지, 체크초코 570g 12봉지, 콘푸로스트 600g 12
	봉지, 후르트리 530g 12봉지
송덕교회	고소미 8곽, 초코칩쿠키 8곽, 버터링 8곽, 참봉어빵(12개입) 4곽, 호떡품은
	참봉어빵(12개입) 4곽, 고소미 8곽, 쉐위 8곽, 초코송이(216g) 8곽, 초코칩
	쿠키(192g) 8곽, 마가렛트 1곽, 예감 7곽, 참봉어빵 4곽, 후레쉬베리 4곽
송덕재활원	장호덕만두 4.5kg 14봉지
양익문교회	간짜뽕(40봉지), 1박스
염정희(나눔)	고구마 10kg, 1박스
온위마을	거실장 1개, 침대 2개
임병준(국원전기)	딸기, 2박스
조돈희(조수희)	굴 5kg 1박스, 꼬갈콘 4봉지, 눈을감자 3봉지, 롤리폴리 5곽, 봉어빵 12개입 3
	곽, 촉촉한 초코칩 240g 4곽, 칸초 5곽, 포카칩 4봉지
조익주(조병일)	바나나 13kg, 1박스
충주시장애인사랑센터	사골 15kg 1박스, 잡뽕 19kg 1박스
충주시청	em그린퐁 12개, em섬유유연제 12개, em액체세제 18개, 김치 10kg 6봉지
충주자활센터	짬이아(30개입) 3박스
충청북도도청	비누 5종 세트



2026 01. 31. 남충주새마을금고 후원물품 전달



2026. 02. 1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후원물품 전달



2026. 02. 13. 나눔사랑회 후원물품 전달



해피빈 물걸레 청소기 구매 모금액 417,200원,  
해피빈 정기 후원금 93,760원을 합산한 총 510,960원으로  
물걸레 청소기 4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눔의집을 응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26.1.1~  
26.3.31

## 2026년 01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25년 지정후원 이월금	17,724,180	인건비(제수당외2건)	1,826,570
25년 비지정후원 이월금	19,319,026	인건비(일용잡금)	120,000
26년 01분기 지정후원금 수입	3,183,020	인건비(기타후생경비)	389,990
26년 01분기 비지정후원금 수입	21,202,050	운영비(여비)	236,200
		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2,701,515
		운영비(공공요금)	1,112,490
		운영비(체세공과금)	3,168,000
		운영비(차량비)	273,282
		운영비(기타운영비)	2,504,200
		시설비(자산취득비)	2,075,760
		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88,000
		운영비(연료비)	190,800
		사업비(의료재활사업비)	181,390
		사업비(사회심리재활사업비)	4,411,380
<b>01분기 수입</b>	<b>61,428,276</b>	<b>01분기 지출금</b>	<b>19,279,577</b>
<b>2026년 01분기 이월금</b>		<b>42,148,699</b>	

## 2026년 06분기 후원품 수입 및 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25년 후원물품 이월품	1,691,400	26년 후원물품(부식)	4,027,460
26년 01분기 후원물품 수입	5,266,030	26년 후원물품(생필품)	851,690
<b>01분기 수입</b>	<b>6,957,430</b>	<b>01분기 지출금</b>	<b>4,879,150</b>
<b>2026년 01분기 이월품</b>		<b>2,078,280</b>	

## 모금함 설치장소



GS편의점(금릉초교점)	북호두(충주점)	이삭토스트(호암점)	호수마을갈비(호암동)
NH농협은행 충주지부	북적북적 서점	중원마트(목행점)	포차처럼(서충주점)
공아춘(호암동)	새마을금고(성서점)	용산동 주민센터	대패어때 2호점(주덕읍)
강동부속구이(칠금동)	세종정형외과(연수동)	식자재왕도매마트(호암동)	
농협하나로마트(KBS방송국 옆)	오픈박스(금릉동)	충주우체국(금릉동)	



안녕하세요? 나눔의집입니다.



최근 충주 시내에서 나눔의집을 사칭하며 물품(빵, 떡, 반찬, 김)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요구**하며 후원금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본 기관은 절대 지역업체(식당, 슈퍼 등)에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며

나눔의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물품이나 현금을 사거나 주지 말아주세요.**



충주문화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 카페이음

충주문화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카페이음"은  
'성중문구'의 뜻깊은 나눔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커피 등 다양한 간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043)724-2131  
충주시 금성대로 429  
/ 성중문구 앞 대표점

사회복지법인 충덕원  
충주 문화 시니어클럽

충주문화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 충주할매약과



할매이가 만든 나-다-떡-을 소개합니다.  
"새끼를 잇는 맛"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충주할매약과에 제품들은 모두 허브신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충주할매약과와 사안단 및 허브신물을 위해 사용됩니다.

메뉴

- 할매약과
- 감태약과
- 모약과세트
- 동지까불이
- 흑임자까불이
- 코코넛까불이
- 한입강정
- 한입혼득쿠키
- 한입양갱
- 선물세트

주문 043.724.2121.  
충주시 남부초(보치면동)

사회복지법인 충덕원  
충주 문화 시니어클럽

